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현대성담론

- 林徽因과 凌叔华的 여성주의문학을 중심으로

고 혜 경
(경희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12년 중화공화국이 수립되고, 정치에서 유교적 정통 대신 서구적 정통성의 개념을 국가의 지도 원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근대 서구국가들의 법·제도를 모방하여 정부기구를 정비하는 등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 (Samuel Phillips Huntington)¹⁾은 『문명의 충돌』에서 근대화와 서구화의 구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하였다. 비서구사회가 서구문화의 실질적 요소를 흡수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서구화와 근대화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지만, 근대화가 가속화하면 서구화의 속도가 하락하고 고유문화가 소생하며, 근대화가 더욱 진척되면 서

1) Samuel Phillips Huntington (1927-2008), 미국 하버드대 교수 역임. 동서 냉전 종식 이후 달라진 세계 정치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문명 충돌론'을 제기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군사정치학,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벌인 그는 '제3의 물결-20세기 후반의 민주화', '불협화음의 미국 정치', '쉽지 않은 선택-개발도상국에서 정치 참여', '문명의 충돌',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 등을 저술했다.

구와 비서구사회의 문명적 세력관계에 변화가 생겨 비서구사회의 자부심과 힘이 늘어나고 문화에 대한 애착도 커진다는 것이다.²⁾ 이를 서구중심주의와 관련시켜 보면 비서구사회는 근대화의 초기에는 서구중심주의에 깊이 침잠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탈서구중심주의가 제기된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 서구중심에서 전개된 페미니즘은 계몽주의적·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성격으로 남녀평등화를 주장하면서 남성에 의한 여성 차별 및 여성 억압을 철폐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질서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요구하였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작가들은 이를 여성해방에 대한 계몽사상의 일환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중국 '5·4' 신문화운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담론은 중국현대문학사의 문학텍스트로 수 십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당시 성별문제가 여성해방문제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계몽사상의 일환으로 비유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魯迅의 소설은 이러한 성별비유를 증명할 만한 가장 좋은 예이다. 노신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남성('현대화' 상징)이 계몽 주도자가 되어 주길 희망하는 '전통'을 상징한다. 전통을 고집하는 중국은 여성신분으로, 또한 계몽의 큰 축인 현대성과 현대화는 남성 신분으로 각색이 되어,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이는 廬隱등의 또 다른 여성작가들을 자극하여 여성해방에 뜻을 둔 페미니즘의 활로를 열게 하였다.³⁾ '문제소설'은 여성을 부권으로부터 억압받는 문제의식을 통해 '전통'의 문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다시 말해, 문제소설 작가들은 전통이란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은 억압을 가하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문제는 단지 계몽해야 할 전통문제 중의 하나 일뿐, 전통문화가 계몽이 된다면 여성문제 역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믿었다.

경과문학에서는 전통을 현대성 패러다임을 구축하기위한 하나의 요소로 재해석하였다. 그렇다면, 경과작가들은 여성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

2)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김영사, 1997. 96-97쪽.

3) 史書美, 『中國現代文學中的女性自白小說』, 『當代』, 第95期, 1994, 108-127쪽 참조.

까? 경과작품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제도에 대한 회귀일까? 아니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문화우선권에 대한 재정렬일까? 경과의 문화와 미학언어는 성별문제를 자신들만의 시야에 가두어 놓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여성성에 대한 재발견을 남성성을 가진 서구무예숭상문화(尙武文化)에 대한 교정으로 보았다. 廢名의 소설에서는 도가의 ‘음양합일’이란 추상적인 원칙위에서 이를 밝혔고, 이는 남성형상과의 상호보완관계에서 여성미학의 복귀를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은 모두 하나의 이론원칙 선상에서 다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여성해방의 화두와 연관된 사회적 범주는 아닌 셈이다. ‘5.4’계몽은 성별문제를 전통의 서열에 반대하는 도구로 끌어들이었지만, ‘신전통’은 성별문제를 이론적 범주로 귀납시키는 형식으로 중국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전통’ 역시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 잠재된 가부장제도의 뿌리까지 제거하진 못하였다. ‘5.4’와 경과의 준비과정은 현저하게 다르지만, 이 둘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여성’문제를 중국전통의 요소와 동등하게 바라보았고, 이는 여성문제를 서로 다른 현대성의 개념에 둘러싸인 중국전통의 연관성 논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물론 여기엔 예외도 있다. 경과문학의 여작가 林徽因(1903-1955)과 凌叔华(1904-1990)의 작품은 이들과 사뭇 다르다.

‘5.4’시기의 주류였던 반전통주의의 주제에서 여성글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면, 경과문학의 여성작가들의 글쓰기는 당연히 더욱 혹독한 도전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경과문학은 필경 전통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들은 전통은 ‘현대’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여겼다). 경과작가들 중, 특히 유럽과 미국의 유학생들로 구축된 신월사의 문학 활동 중, 이중문화주의(biculturalist)라는 세계주의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주의 사상은 현대중국문화 구조 속의 동서이원론법에 대한 도전이긴 하였지만, 성별의 이원론법에 대하여는 관심 밖이었다. 세계주의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신전통주의⁴⁾는 반식민 문화형식의 일부로, 서슴치 않고 서구의 도시문화를 도

4) 파리강화회의 후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公理와 자유 민주에 실망한 신문화운동 세력이 한편으로 마르크시스트로 변신하여 갔고 청년층사이에 급진주의 혁명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의 물질주의 문명에 대한 재인식으

용하기에 바꿨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세계주의 속의 신전통주의는 여성의 이중성 태도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신전통주의를 다문화적 시각에서 관조하자면 林徽因과 凌叔华 모두 전형적인 경파문학가라 할 수 있지만, 그녀들의 다문화적 생활이력에서 비롯된 여성의식은 분명하게 성별화가 되어있다. 이 역시 그녀들의 목소리가 신전통주의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로 변하게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서구’에 대한 반대구호를 야기하게 되고, 그녀들로 하여금 성별화의 시야로 중국전통의 부흥을 꾀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두 여작가 林徽因과 凌叔华의 작품과 생활이력을 고찰하여,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현대성’의 의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전통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 여성이 자신과 전통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현대성과 상대되는 글쓰기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에 비추어 서구 문물을 수정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이중의 변증법적인 과정이기도 하며, 서구의 여성주체의식과 전통의 문학들의 혼용이라는 방식으로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질 문제의식은 凌叔华가 서구중심문화와 가부장중심사회 속에서 이미 각인된 중국의 전통성과 규정된 여성의 지위에 대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판단하고 절충시켜나가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대성’과 ‘전통’의 혼용이라는 이중성은 그녀들의 서구중심적 페미니즘을 넘어서기 위한 문학적 실천을 역설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서구의 여성주체성관념이 전통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을 향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

로 인해 중국의 신전통주의가 보수적 지식인 사이에 재기하였다. 신전통주의는 무엇보다 일찍이 ‘新民’論의 계몽의 맹장이었던 양계초가 『歐游心影錄』을 발표하여, 신문화운동이 고양한 과학과현대서양문명의 과학만능주의를 재평가 비판하고, 54세기 위신이 땅에 떨어진 유학의 정신가치에 대해 변호하면서 문화보수주의의 재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II. 풀어놓은 글

1. 林徽因의 여성주체성과 에피소드식 서사기교

林徽因과 凌叔华 모두 다문화라는 풍부한 교육적 환경, 명망높은 중국전통의 가족관계, 이에 따른 특권으로 부여된 다국적 활동이라는 다채로운 경력들이 있다.

林徽因은 Phyllis Lin, 또는 林徽音이라고 불린다. 그녀의 아버지 林長民(1876-1924)은 일본 와세다 대학의 졸업생으로, 정치무대에서도 영향력 있는 학자겸 외교관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여, 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맞아 아들 넷을 낳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네 아들보다도 林徽因을 더 아꼈다. 林長民은 영국에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갔을 때 林徽因을 데리고 갔고, 그녀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林徽因 생애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지속되었지만, 아버지의 일부다처제라는 또 다른 환경은 그녀에게 좌절과 분노를 일으켰다. 양자 간의 갈등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극에 달한 분열증상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하였고, 아버지가 숭상하는 문화에 대한 갈망과 함께 어머니로 인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좌절감도 동시에 겪어야 했다.

林徽因은 영국 유학 1년후,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떠났고, 1924년에는 미래의 남편 梁思成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1926년에 건축설계사의 겸임교수가 되었다. 林徽因은 1927년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梁思成과 1년 후 결혼을 하고, 1928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 미국친구가 그녀를 취재한 내용(몬태나(Montana)신문)을 살펴보면, 그녀의 미국적 현대여성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난 처음엔 그들이 아주 바보같아 보였지만, 그들을 다시 꿰뚫어보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반려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여성의 모든 가치가 그녀의 가정에서 비롯되지만, 이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민주정신이 있다.”⁵⁾ 이외에도, 林徽因은 미국여성의 가치는 자립에 있지만,

5) 費慰梅(Wilma Canon Fairbank)「,梁思成과 林徽因—對探索中國建築史的

중국여성은 가정환경이 가치를 그녀들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고, 민주와 독재의 관점에서 미국여성과 중국여성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林徽因의 여성주체의식이 서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서구의 개입도 명확히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林徽因의 여성주체의식 형성과정에 있어서 서구개입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1920년대 중반 林徽因이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유학할 당시 그녀는 대량의 중국 예술품을 소장한 예술박물관의 고객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소장품 중에는 당나라 왕족 묘에서 발굴한 진귀한 당삼채 말이 두 마리 있었는데, 당삼채 말과 林徽因의 불행한 만남은 林徽因의 ‘이미 죽어버린 중국에 대한 재발견’ 이라고 林徽因 전기를 쓴 작가가 말한 바 있다. 이는 林徽因이 타국에서 새롭게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이고, 대다수의 경과 사상가와 작가들이 모두 겪었던 비슷한 경험들이기도 하다. 林徽因의 남편 梁思成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梁思成은 온 힘을 다해 중국건축의 ‘법칙’을 발견하고 기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만의 동방주의 의식도 아니고, 문화 민족주의도 아닌 이국 땅에서의 자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며, 중국이라는 영역에 대한 인식이자, 일종의 소외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林徽因과 梁思成의 주체성에는 순수한 ‘서구’ 개념의식은 흐려지고, 순수한 ‘중국’의 개념으로 동요되기 시작했다.

1928년 林徽因이 귀국 할 당시 온몸으로 느꼈던 문화충격은 중국문화에 대한 소외감으로 이어진다. 이런 그들을 윌마 페어뱅크(Wilma Fairbank)⁶⁾는 “한 쌍의 상실감으로 뒤덮힌 립 밴 윙클(Rip Van Winkes)”⁷⁾같다고 표현했다. 그들은 이중문화성(biculturality)을 나타내면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伴侶, 『讀書』, 第10期, 1994, 27쪽.

“我承認剛開始的時候我認為她們是很傻，但是後來當你已經看穿了表面的時候，你就會發現她們世界上最好的伴侶。在中國，一個女孩子的價值完全取決於她的家庭，而在這裏，有一種我所喜歡的民主精神。”

6) 윌마 캐논 페어뱅크(Wilma Canon Fairbank, 1909-2002)은 중국의 건축과 예술을 연구한 미국학자로서, 남편 존 킹(John King Fairbank)과 결혼한 해 북경에서 林徽因 부부와 인연을 맺어 교우관계를 맺어왔다.

7) 費慰梅(Wilma Canon Fairbank), 「梁思成과 林徽因—一對探索中國建築史的伴侶」, 36쪽 참조. 미국작가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의 작품 『見聞記』

한 문화도 당연한 문화라고 보지 않고 한 문화만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았
다. 1934년 林徽因은 월마 페어뱅크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이중문화성을
토로하며“ 당신도 알다시피 난 두 나라라는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
문에, 두 문화의 상호 접촉이나 교류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됩니다”.⁸⁾ 林徽因
은 현대성을 단순히 반문화적 용어로 인식하지도 않았으며, 특정지역의 산물
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중문화성은 다문화주의과
이와 관련된 세계주의적 시각의 상호작용 하에 주체적으로 형성된 다문화적
시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관념은 민족주의 범주를 초월한 범례로
전세계적 문화와 사회맥락 속에서 점차 자리매김을 해나갔으나, 식민주조에
근거한 서구문화중심의 문화군질원칙에는 따르지 않았다 (이 원칙은 기타 제
3세계 식민지국가에 보편적으로 존재해 있다).

앞에서 林徽因의 생활과 창작을 중점 서술하였는데, 이는 그녀의 대표작인
『九十九度中』(1934년)을 한 발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이 소설은 『學文』이라는 월간지의 창간호에 게재된 작품으로, 중국의 저명한
현당대 소설가 汪曾祺로부터 중국 제일의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식의
의식의 흐름(또는 의식의 스트림)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은바 있다.⁹⁾

대략 이 14개의 단편과 9부분으로 구성된 소설에서 林徽因은 북평의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 일어난 생활을 서술하였는데, 모두 40여 명의 인물을 묘사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겉보기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줄거리로 한 무더

의 주인공. 『見聞記』는 영국을 방문한 미국인으로서의 견문을 중심으로 영국의
전통과 미국의 전설을 은연중에 대비시키며 묘사하고 있는 단편집으로, 수록된
작품 중 가장 유명한『립 벤 윙클』소재는 현실의 미국에서 구하면서, 실은 과거의
세계에서 잠에 빠져 있던 사나이가 그 현실세계로 돌아와서 당황한다는 이야기로
작가가 현실세계에서 느끼고 있던 위화감과 과거의 세계에서 품고 있던 향수를
나타내고 있다.

8) 앞의 책, 91쪽.

"你知道，我是在兩種文化教下長大的，不容否認，兩種文化的接觸和活
動對我來說是必不可少的。在你們真正出現在我們在(北總布胡同)三號的生
活之前，我總感到有些茫然若失，有一種缺少點甚麼的感覺，覺得有一
種需要填補精神貧乏。"

9) 汪曾祺, 『晚翠文淡』, 杭州: 浙江文藝出版社, 1988, 41쪽 참조.

기의 인물집단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우환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자 행동을 하고 있다. 등장인물 중 짐꾼과 인력거 楊三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이야기 전개 과정 속에서도 함께 부딪힐 일도 없다. 그저 폭염 속에서 느끼는 갈증이라는 주제가 유일한 실마리일 뿐이다.

林徽因은 소설에서 여러 가지 기교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관성 없는 인물들의 이웃관계, 주제나 인물들의 심리활동의 관련성들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 작가는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줄거리의 발전을 유도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마치 카메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장면을 포착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몽타주의 기법으로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영상처럼 보여주는 듯하다. 林徽因은 자신의 서사적 각도를 끊임없이 이동시키며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영화적 언어로 특정 인물의 형상을 잡아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어떤 여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그의 왼쪽을 스쳐 지나갔다. 카메라 렌즈같은 투명한 얼굴색, 발과 다리, 허리와 등, 옆모습, 눈과 머리카락, 모든 영상이 老盧의 눈 안에 들어왔다.¹⁰⁾

이처럼 네 번째 부분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같은 화면이 펼쳐지기도 한다. 또 이 부분에서 세 사람이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 중간에 돌연 부부 한 쌍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투입되는데, 이 역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락이다. 주인공들의 움직임만 보았을 때 이 단락의 묘사 방식은 마치 카메라가 장면을 포착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 카메라는 인물들의 움직임을 배경삼아 줄거리에 필요한 배경을 마련해 주어 인물들의 활동에 복선을 제공하고 또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마치 각도의 전환을 통해서 줄거리의 전망과 배경의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

10) 林徽因, 「九十九度中」, 『文學』, 第1卷 第1期, 1934, 25-26쪽.

“一個女人騎着自行車, 由他左側沖過去. 快鏡頭似的一瞥鮮艷的顏色, 腳與腿, 腰與痛, 側臉, 眼和頭髮, 全映進老盧的眼里”

시키는 카메라처럼 소설 역시 다각도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사건을 진행시키는 다중적 서술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王康과 楊三 간 다툼의 시초는 세 번째 부분 줄거리의 주체가 되는 사건이 되고, 다섯째 부분에서는 경찰이 흰 밧줄로 그들을 묶어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을 劉太太가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둘의 싸움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사건은 여덟째 부분에 일어나게 된다. 이름없는 짐꾼의 사망은 소설의 한 부분에서는 서술의 초점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짐꾼에 대한 서술은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일 뿐이다. 소설의 서술 각도는 자유스럽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소설은 여러 단편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서사의 단편성은 중국의 전통적 엮음식인 ‘에피소드 서술’(episodic narrative)의 서사 방식을 떠올리게 하는데, 즉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우연히 병존하게 되지만, 서사방식은 ‘상호 혼합적’이고 ‘그물망’의 관계로 구성된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서사방식을 중국인의 세계관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즉, 세계는 외부 역량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조화적 유기체’라는 것이다.¹¹⁾ 중국의 ‘에피소드 서술’의 서사 미학의 핵심 내용은 바로 ‘틈새에 존재하는 것이지, 세밀하게 짜여진 구조의 공간이 아니다’는 것으로, 중국의 서사기교는 단편과 소단원의 ‘상호 교차’와 ‘밀접한 배합’에 있다.¹²⁾ 연속성이 중국의 서사기교에서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줄거리의 필연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청대의 경진『儒林外史』에서 나타났던 ‘에피소드 서술’의 전통적 서사기교를 林徽因 소설의 짜임새에서 찾을 수가 있다.¹³⁾ 이와 같은 중국의 전통적 미학 요소와 서구 현대주의의 미학적 요소의 일치성을 통해 林徽因의 작품은 뚜렷한 중국적 현대주의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경과의 비평가 李健吳는 “이 소설의 구성이나 기교, 배치, 특히 가장 중요한 전통적 견고함으로 보았을 때, 이 소설은 ‘가장 현대적’이다”라고 평하였다.¹⁴⁾

11) 林順夫, 「〈儒林外史〉의禮及其敘事結構」, 『中國敘事學』, Andrew Plak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249-250쪽.

12) 앞의 책, 334-335쪽 참조.

13) 王瑤, 「中國現代文學與古典文學的歷史聯繫」, 『北京大學學報』, 第5期, 1986, 1-14쪽 참조.

비록 林徽因 소설의 구성이 짜임새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공간적 배경이라는 공시성 책략은 소설에 연관된 주제의 실마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소설은 부유계층과 온갖 핍박받는 하층 노동자계층을 대조시켜 사회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끌어내었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짐꾼이 흙투성이가 된 된 신발을 신고 무거운 짐을 드는 장면, 盧二爺가 편안하게 인력거에 앉아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장면들은 서로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林徽因이 소설에서 어떠한 부가적인 설명들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대조적인 두 장면의 대비 자체가 바로 비판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명문대가 老太太의 생일 잔치 한편에선 불쌍한 인력거꾼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다른 짐꾼은 콜레라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를 당해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쓸쓸하게 죽어 간다. 王康과 楊三의 다툼이 길거리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선 집안의 강요로 한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원하지 않는 결혼식을 치루고 있다.

阿淑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아가씨는 자유 혼인을 갈망했지만, 아버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녀의 결혼을 서두를 것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녀가 읽었던 수많은 서적들은 그녀를 ‘5.4’의 자유연애 이론에 능통하게 만들었지만, 이론과 집안이 정해진 혼인이라는 현실간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다. 결국 이 혼인은 그녀의 운명을 비참하게 바꾸어 놓았다. 다음은 阿淑이 혼인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작가가 서술한 부분이다.

이론과 실체는 참으로 다른가 보다; 이론에서는 혼인이 어찌구 저찌구 하지만, 阿淑은 오늘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할 여력이 없다. 사실, 그녀가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낮설고, 성도 다른 남자가 그녀의 집에, 심지어는 그녀의 옆에까지 앉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근 몇 년간의 난제를 밥 한끼 먹는 절차, 그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문명적이라는 방법으로 감각스럽게 해결해 버린 것이다.……그 날 그녀는 처음으로 그 낮설고, 성도 다른 남자를 보았다.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그가 아름다웠던 그녀의 희망을 깨뜨려 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저 멍할 뿐이었다. 죽을 수나 있을까,

14) 李健吳, 「九十九度中---林徽因女士做」, 『李健吳創作評論選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454쪽 참조.

혼인에 대한 실망때문에 자살을 할 수나 있을까?질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이제는 행복과도 작별이다. 일을 되돌리기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다.그러나 阿淑은 ‘왜 내가 아직도 마음이 조금해 지는 걸까, 난 지금 죽으로 가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형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말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¹⁵⁾

阿淑과 이 낯선 남자와의 비극적인 혼인은 바로 그녀가 자유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5.4’시기의 자유연애에 대한 이상은 그저 이상일 뿐, 그녀가 애타게 꿈꾸었던 이상은 오히려 그녀를 비웃고 있다. ‘5.4’이후 10여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林徽因은 변하지 않은 사회 속에 남겨진 서구중심의 이상주의에 대한 비극성을 고민해야 했다. 이상은 한줄기 공허한 메아리로 여성들을 이중으로 옥죄어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天津의 문학잡지 『大公報』에서 林徽因에게 당시 『大公報』에 발표되었던 당대단편소설들을 선별하여 책으로 펴낼 줄 것을 부탁하였고, 林徽因은 이를 기꺼이 응낙하였다. 이 때 林徽因은 한 여인의 매매혼인을 희극적으로 묘사한 羅淑의 『生人妻』를 선별하였고, 미완성작인 극본 『梅真同他們』(1937)과 단편소설 『文珍』(1936)에서는 억압받는 하녀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5.4’의 해방선언과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현실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다시 한번 지적해낸 것이다.¹⁶⁾ 당시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적 현실은

15) 林徽因, 『九十九度中』, 30-31쪽.

"理論和實際似乎永不發生關係; 理論說婚姻得怎樣又怎樣, 今天阿淑都記不得那許多了。實際呢, 只要她點一頭次, 讓一個陌生的, 異姓的, 異性的人坐在她家里, 乃至於她旁邊, 吃一頓飯的手續, 父親和母親這兩三年-----興許是伍六年來的-----"難題便突然地在他們是覺得極文明地解決了.....那天她初次見到那陌生的, 異姓的異性的人, 那個庸俗的典型觸碎她那一點脆弱的愛美的希望, 它怔住了, 能去尋死, 爲婚姻失望而自殺么?.....現在一鞠躬, 一鞠躬地和幸福作別, 事情已經太晚得沒有辦法了.....但是阿淑想怎麼我還如是焦急, 現在我該像死人一樣了, 生活的波瀾該沾不上我了, 像已經臨刑的人。

16) 이 소설은 미완성인 4막극으로 『文學雜誌』第1期, 1937, 147-180쪽, 111-14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林徽因의 작품 『文珍』등의 소설은 鳴福輝, 『京派小說選』

‘5.4’에 반하는 모순이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5.4’시기 여성관에 기초한 신진통주의의 의식형태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성이라는 측면을 가지며,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혼용의 측면에서 서구중심주의의 이상화된 보편적인 주장과 현실의 불완전한 모순된 실천 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전통에 비추어 서구 문물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서구중심주의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성 또는 이중성 이상과 현실간의 불일치를 폭로함으로써 표면적인 혼용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林徽因은 서구중심주의 이론의 모순성을 공격하고 자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도입하여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林徽因은 창작과정에서 ‘에피소드 서술’방식인 전통문학의 기술을 빌어, 동조와 비판이라는 이중성을 나타내었다. 중국 전통방식의 글쓰기 관례에 동조하면서도 내재된 성별 결정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숨기지 않고자 하였다.

2. 凌叔華의 풍자적 모방과 여성성의 재해석

凌叔華 역시 林徽因처럼 명문가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청말 조정의 관직에 있었는데 지금의 하북성 총독이나 북경시장의 고위급 관리에 속한다. 어머니(아버지의 6명 부인 중 네 번째 부인)는 아들을 낳지 못해 남편으로부터 홀대 받는 처지로 혼인생활의 좌절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다. 凌叔華은 일본에서 3년 동안 유학을 하고 돌아와 陳源과 결혼하여, 1927년 또 일본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일본의 당대 작가 기쿠치 칸(菊池寛)과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등의 작품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凌叔華의 20년대 말 문학창작은 주로 영국의 현대주의 경향으로,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작가 캐더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¹⁷⁾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¹⁸⁾의 영향을 많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0, 203-232쪽에 실리기도 하였다.

17) Katherine Mansfield,(1888-1923)는 영국의 소설가로, 최초의 단편집《독일의 하숙에서》과《전주곡》년),《원유회》등의 총 80여편의 단편과 서한집을 남겼다. 당대 최고의 단편작가라는 평을 받았으며, 의식의 흐름과 상징을 적절히 활용하며 사회

이 받았다. 凌叔華의 인물심리에 대한 섬세한 묘사에 대해 일본 독자들은 그녀를 ‘중국의 캐더린 맨스필드’라 칭했을 정도이다. 30년대 말기, 그녀는 버지니아 울프와 편지를 주고 받기 시작하였고, 1947년 영국으로 이주하여 남편과 재회를 맞았다. 1953년 凌叔華는 버지니아 울프의 격려로 영국에서 자신의 영문 자서전 『古韻(Ancient Melodies)』을 출판하였는데, 자서전의 서문은 버지니아 울프의 연인이기도 했던 소설가 겸 시인 비타(빅토리아) 색빌 웨스트(Vita Sackville-West)가 써주었다. 凌叔華의 창작은 중국에서 출판된 3권의 소설집과 자서전, 2권의 산문집, 그리고 영국에서 전시한 그림이 전부이다.

서구/미서구 주체, 혹은 서구/미서구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는 항상 동요하는 지형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서구/미서구의 문제를 어느 한쪽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절합관계에서 나오는 ‘효과’로 본다.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Homi Bhabha)¹⁹⁾는 이를 모방(mimicry)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바는 식민지적 모방은 다시 만들어지고 공인된

적 문제를 섬세한 내면적 묘사와 결합해낸 작품들을 통해 버지니아 울프 등 후대 작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18) Virginia Woolf, (1882-1941)는 영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여성작가로, 의식의 흐름 장르를 탄생시키고 완성한 작가 중 한 사람이다.《델러웨이 부인》,《등대로》,《울란도》,《자기만의 방》,《파도》,《세월》등의 작품을 남겼다. 특히『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은 여성문학론의 고전이자 여성해방론의 시초로써 간주되는 작품으로 근대 영국에서 남성과의 관계에만 의존해서 존재해 온 여성에게 생활의 자립을 꾀할 수 있는 돈(500 파운드)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가질 것을 권유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위대한 여성작가의 탄생과 함께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그녀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9) 바바는 '탈구조주의 문화이론가'라기보다는 보통 가야트리 스피박까지 포함하여 에드워드 사이드와 함께 탈식민주의 '삼총사'로 불린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유럽 인들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볼 수 있듯이 비 유럽사회를 다소 환상적인 이미지로 포장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한다. 유럽의 지배 속에서 피식민지인들은 오리엔탈리즘적 정체성을 갖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타자로서 응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완벽하게 포섭되지 못 하고 오히려 저항할 수 있는 틈새가 보이는 것에 대해 호미 바바는 양가성과 혼성성 그리고 모방(흉내내기)로 설명하려 한다.

타자, 즉 거의 동일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 차이를 가진 주체로서의 타자를 욕망한다고 말한다.²⁰⁾ 모방의 과정은 비서구 주체의 저항의 가능성으로 대립적인 서구 주체와 이항을 이루어 자신의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속성 속에서 서구 주체와 관련을 맺음을 의미한다.

서구 페미니스트들과의 다양한 인연 속에서 다문화적인 지역적 영향을 받았던 凌叔華에게 있어서 서구중심문화에 대한 저항의식의 문학적 실천은 중국문학의 전통적 틀과 서구의 재해석 된 여성성의 모방이었다.

凌叔華의 작품 중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작품은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말까지 쓰여졌던 단편소설들이다. 이 소설들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 형식상의 캐서린 맨스필드와 버지니아 울프의 가정소설이나 여성성을 주제로 한 여성미학의 표현방식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凌叔華의 작품 중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여성이나 아이들의 사소한 집안일들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현대문학사상의 일차적 작가군에서는 배제되어 왔다. 게다가 남성비평가들은 모두 그녀를 ‘新闺秀派(새로운 여성 장르)’의 대표작가로 분류하고, 단지품위나 교양을 지닌 여성이라는 수식어로 그녀의 성별과 작품을 국한시켰다.²¹⁾ 한 남성비평가는 凌叔華가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의 미는 신체의 아름다움에 나타나 있다며 천박한 식견을 내놓았고, 또 다른 비평가는 작품 속에 내비친 凌叔華는 “천부적인 총명함을 지닌 여인”이라 평하였다.²²⁾ 미국의 페미니스트 메리 엘만(Mary Ellmann)은 ‘남근비평’(Phallic criticism)²³⁾이라는 비평용어를 창시하여 남성 비평가들의 편

20)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 역, 소명출판사, 2002, 186쪽 참조.

21) 毅眞, 「畿位當代中國女小說家」, 黃人影 編, 『當代中國女作家論』, (上海: 光華書局), 1933 참조. 이 책은 맨처음 凌叔華의 작품을 ‘新闺秀派’로 분류하였다. 이 개념에 대한 비평으로 周蕾, 「良性交易」, 『中國現代文學』, 第4期, 1988, 72-73을 참조 함.

22) 陳敬之, 『現代文學早期的女作家』, 臺北: 成文出版社, 1980, 79-93쪽; 毅眞, 「畿位當代中國女小說家」, 15쪽 참조.

23) 기존의 문학 전통에서는 남근(penis)과 펜(pen), 언어의 방출을 연결시키면서 남성에게만 글쓰기의 특권을 부여했고, 부재나 침묵, 불가시성(不可詩性), 궁핍 등

협된 시각을 비판하였다. 그녀는 매혹이나 순종, 또는 편협함 등의 수식어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폄하하며 여성작가의 작품 자체를 하나의 여성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잘못된 평가를 지적하였고, 그들이 여성성을 지나치게 주시하고 있음도 간과하지 않았다.²⁴⁾ 凌叔華 작품에 대한 평을 내놓은 남성비평가 역시 이러한 ‘남근비평’의 시각에서 본다면 남성중심주의의 여성성 평가일 것이다. 凌叔華의 맨스필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그녀 역시 서구에서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녀의 작품은 ‘섬세함, 귀여운 여성의 이미지’등으로 비추어지기 일쑤였다. 이에 대해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폄하된 여성의 함의를 독특한 여성미학으로 재해석하고자 주력하였다.²⁵⁾ 그들의 노력은 ‘여성성’을 일종의 특정한 표현방식으로 새롭게 평가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작품 속의 잡다한 일상생활들까지도 심층도 있게 조명되었다. 여성성의 표현방식에 대한 凌叔華의 풍자적 의미의 모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중국문학전통의 틀 안에 갇힌 여성성이라는 모종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중국이라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과 결부된 소극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凌叔華에 대한 독자의 오류는 작가와 표현방법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중국문학에는 여성풍격으로 쓴 작품 이외에는 별다른 특정한 여성전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성작가로서 표현방식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凌叔華는 서구의 여성성 재해석이라는 ‘현대성’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성성 글쓰기의 모방은 그녀의 창작이 서구의 페미니즘에 전반적으로 동화된 창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凌叔華의 여성성 주체의식 형성요인에 있어서 서구 페미니스트

의 부정적 징표만을 여성에게 부여했다. 이처럼 남성 중심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여성작가를 차별하는 비평을 ‘남근비평(phallic criticism)’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존의 문학 전통과 남근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페미니즘 문학은 기존의 문학을 다시 읽고 다시 쓰기를 요청한다.

- 24) Mary Ellmann, *Thinking about Women*,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World, 1968년, p. 29 참조.
- 25) Clare Hanson, “Katherine Mansfield”, Bonnie Kime Scott 편집, *The Gender of Modernism*,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298-305 참조.
- 26) Scott, *The Gender of Modernism*, p.13; 301-303; 647-649 참조.

들의 적극적 창작지원은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지만, 그녀의 내부까지 완전히 서구화 시키지는 못했다. 그녀의 중국전통식 교육을 이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凌叔華는 중국 전통적인 가정에서 경전이나 전통 문인화가들의 전통식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백화문으로 쓰는 글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소설처럼 정통에서 벗어난 문체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凌叔華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또한 딸의 작품을 읽으려조차 하지 않았다.²⁷⁾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凌叔華의 ‘현대성’은 사회학자 데니즈 칸디요티(Deniz Kandiyoti)이 표현했던 것처럼 “절제된 현대성”(modern and modest)으로 형성되어야 맞을 것이다. 이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변동과정에서 ‘현대성’개념의 제 3세계적 실천장을 보여준 데서 생긴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남성중심사회에서의 여성작가들은 외면상으로는 부권이나 창작규율과의 모종의 계약을 믿고 따르는 듯 해보이지만, 은연 중 소소하게 그러한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²⁹⁾ 凌叔華는 스스로 가부장제의 창작규율이라는 중국전통의 여성 글쓰기 방식을 선택하여 여성작품을 여성성의 범위 내에 포함시켰지만, 동시에 풍자적 의미의 여성성 글쓰기 모방을 통해 이러한 창작규율을 파기하기도 하였다. 凌叔華의 작품 속에는 타자에 의해 강요된 여성성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부장제에 대한 체념의 목소리도 들어있지만, 그 체념의 목소리를 와해시킨 여성성의 여성 주체성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작품은 내부의 두 목소리가 충돌하는 ‘대위법의 담론’³⁰⁾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는데, 양자간의 충돌은 그녀의 풍자적 의미를 지닌 여성성 글쓰기 모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7) 凌叔華, 「新加坡版凌叔華選集後記」, 『凌叔華小說集』, 第2卷, (臺北: 洪范書店), 1986, 269쪽 참조.

28) Deniz Kandiyoti, "Identity and Its Discontents: Women and the Nation", Patrick Williams, Laura Chrisman 편,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437 참조.

29) 周蕾, 『良性交易』, 85쪽 참조.

30) 이 개념은 Mikhail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Caryl Emerson 역,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p.181-269 참조.

소설 『綉枕』(1925년)을 당시 여성작가와 그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풍자로 본다면 전통적 여성미 회복과 여성성 글쓰기 풍자적 모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凌叔華의 다른 소설들처럼, 이 작품 역시 아름답고 품위있는 풍격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작품 곳곳에 고전적 미학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문구들로 가득 차 있다. 소설이 묘사한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베개에 부지런히 수를 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 베개는 장차 명문가로 전해져 그녀에게 결혼이란 인연을 가져다 줄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처럼 고귀한 집 딸에게는 이 역시 관례였던 것이다. 하녀와 하녀의 말괄량이 딸이 쏟아놓는 찬사와 그녀의 독백에서 그녀가 이 자수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른네 가지 각기 다른 색의 실로 봉황에 수를 놓았는데, 색깔을 잘못 맞춰 세 번이나 다시 봉황의 벗에 수를 놓는가 하면, 연잎의 색깔에 더 없는 생동감을 주기 위해 열두 가지의 초록색 실로 배색을 맞추고, 연꽃잎에 수놓을 연분홍색 실이 땀에 더러워질까 손을 씻고도 만지지를 못해 심지어는 분말파우더로 손을 닦기도 하는 등, 정성들여 수를 놓고 또 놓았는데 이 때문에 여러 날을 눈병에 걸리는 날도 많았다. 쉽게 말해 이 베개는 가부장제가 만든 전형적인 ‘아녀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에 그녀는 하녀의 딸을 통해 그토록 공을 들인 이 베개의 운명에 대해 듣게 된다. 어느 날 파티가 끝난 후 술에 취한 한 손님이 베개에 한바탕 토한 뒤로 내다버려지자, 집안 하녀가 주워 자기 딸 손에까지 전해졌고. 하녀의 딸은 이 베개를 잘라 베갯머리 장식으로 만들어 썼다는 이야기다. 그 뒤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서 그렇게 체념하며 또 그것을 지키며 지내고 있었다.

凌叔華는 작품 속 여주인공에게 내던진 비판의 목소리는 부권이라는 그늘에 갇혀 지내야 하는 처지와 그녀가 지키려했던 부권이라는 신념이었다. (이는 周蕾가 말한 “부권의식형태의 완벽한 효능”이라고 할 수 있다³¹⁾) 凌叔華의 여주인공에 대한 비판 속에는 성별의 척도도 있지만, 가부장제라는 계급 또한 함께 존재한다. 이런 가부장제도하에서는 하녀와 하녀의 딸은 비천하고

31) 周蕾, 『良性交易』, 79쪽.

불결한 존재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의 딸은 이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는 존재였던 것처럼, 작가가 전통적이고, 허락된 정통의 창작에 주력한 것이 바로 풍자였음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다. 이 소설은 마지막에 凌叔華의 여성 글쓰기 전통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요원한 것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계승과 아이러니라는 이중적 태도는 ‘闺怨诗’라는 장르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李清照와 朱淑眞의 여류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闺怨诗’는 후에 闺秀文学(여성문학)이라는 큰 장르에 포함되지만, 작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그저 여성들에 배개맡 읽을거리로 제공되던 정도이다.³²⁾ 凌叔華의 작품 역시 ‘闺秀文学’에 속하지만, 闺怨诗와는 분명 다른 특정한 동기와 취지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시가 전통 중, 闺怨诗의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의에 빠진 남성들과 규방 안의 여류시인들이었다. 전자는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 정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후자는 여성의 섬세함과 갈망, 그리고 번민, 감성들을 전달하였다. 시가의 주인공들은 통상적으로 여러 원인들에 의해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리따운 여인네이다. 규방안에 갇혀 있는 여주인공들은 심경은 이미 창문 넘어 바깥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³³⁾ 凌叔華 역시 자신의 작품 속의 항상 애수에 차 있는 감상적인 여성인물들을 이들과 비슷한 공간과 심경에 처하게 만들지만, 그녀는 반어적 함의를 지닌 문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였다.

凌叔華는 자신의 많은 소설 속에서 규방에서 권태로움을 느끼는 여인과 창문 밖 만개한 꽃들을 대비시켜 질식하리만큼 답답한 규방 안의 침울한 기운을 잘 나타내고 있다. 『綉枕』에서 작가는 ‘햇빛을 온 몸으로 받고 있는’ ‘불을 토하는 것 같은 붉은 꽃’의 ‘석류’를 통해 규방 안의 생기없는 여인들을 풍자했으며, 『吃茶』(1925년)에서는 ‘햇빛에 잠겨있는 싱싱한 분홍장미꽃’으

32) 본 논문은 규수문학의 문학풍격에 대해 Clara Yu Cuadrado의 개념을 빌었다. Clara Yu Cuadrado, “Portraits by a Lady: The Fictional World of Ling Shu hua”, *Women Writers of Twentieth-Century China*, Asian Studies Publication Series, Eugene: University of Oregon, 1982, p. 41 참조.

33) Hans H. Frankel, *The Flowering Plum and Palace Lady: Interpretations of Chinese Poet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p. 56-57 참조.

로 결혼을 갈망하는 전통적인 여성을 풍자하였다. 『春天』(1926년)에서는 뜰 안에 만개한 꽃을 가득 안고 있는 명자나무를 보고 번뇌에 빠진 규방 안 젊은 여인을 묘사하였다.³⁴⁾ 특히 『吃茶』에서는 스스로를 철저히 고결한 인격자라 여기는 芳影(아름다운 그림자라는 뜻)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형적인 규방 소녀는 묘사하였는데, 그녀는 항상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고전시가를 읊조림으로써 자신이야말로 가부장제가 낳은 구시대적인 여성의 표상이라 자처한다. 그녀는 가정이라는 내적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갖게 해주는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작가가 규방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여성들 스스로 자처하여 자신과 가정이란 연결고리에서 존재가치를 찾음으로써 스스로를 생기없는 죽음과 같은 생활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녀들이 찾은 존재가치를 내재화 시키는 것은 凌叔華는 여성생활을 ‘가정 내부와 가정외부’로 나누어 이원화시키고, 규방 안 여성과 규방을 떠나기로 결심한 여성을 하나로 묶어 풍자하였다. 『送車』(1929년) 속에서는 다른 현대 여성이 결혼이란 달콤함을 향유하고 있을 때 혼인과 가정의 노예가 되어 구속된 혼인생활을 하는 두 전통 여성의 삶을 대비시켜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여성과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의심할 나위 없는 가부장제도라는 것을 작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凌叔華는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묘사함과 동시에, 이 사사로운 집안 일들 뒤에는 ‘억압’이라는 사회 의식형태의 함의가 들어있음을 비판하는 한편, 사사로운 집안 일들을 빌어 여성자신이 피동적이기 때문에 억압받을 수밖에 없음을, 또한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도도 언젠가 끝날 운명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花之寺』(1925년)와 『瘋了的詩人』(1928년)에서 凌叔華의 풍자적 모방과 여성 서정시체에 대한 표현은 전통적인 서정시체를 좋아하는 남성 시인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凌叔華는 규방 여인들에 대한 풍자적 모방을 통하여 여성해방의 목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남성중심적인 문학전통을 벗어나 여성의 미학

34) 이 작품은 일찌기 『花之寺』에 발표한 작품이다. 上海：新月書店，1928. 본문에서는 『凌叔華小說集』第2卷，376쪽을 참고하였다.

을 자리매김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백화문 작가 凌叔華와 그녀 자신이 계승했던 문학전통 간의 혼용일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서로 뒤섞여 있으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백화문과 문언문, 현대와 전통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현대문학 작가 朱光潛은 문장과 작품에 표현된 정서의 깊이로 보았을 때, 凌叔華의 문학 창작 스타일은 그녀의 문인화적 풍격과 매우 흡사하다고 평하였다.³⁵⁾ 쿠아드라도 (Clara Yü Cudrado)는 凌叔華의 소설 속에는 ‘언어 속에 굳어져 있는 시각 형상’과 ‘회화적 어휘’로 묘사한 자연풍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녀는 의식적으로 실패에 감겨있는 수묵화 방식으로 글을 운용하였다고 하였다.³⁶⁾ 凌叔華의 화가적 감성은 현실주의의 기초를 깨뜨렸고, 그녀의 문인화 풍격은 실질적으로 凌叔華가 채용한 반현실주의 미학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구습에 따르지 않는 미친 사람이라고 매도된 반현실주의 여성 시인이야말로 현실을 배제시킨 현대주의를 적절하게 비유한 것이다.

凌叔華의 여성성을 추구하는 여성적 글쓰기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맨스필드의 여성적 글쓰기 역시 凌叔華의 창작에 합법성을 제공한 셈이다. 徐志摩와 凌叔華의 남편 陳源, 그리고 凌叔華 본인 모두 대량의 맨스필드 작품을 번역하여 『現代評論』, 『新月』, 『小說月報』에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³⁷⁾ 이로 인해, 凌叔華의 서구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문학적 실천은 서구의 여성주체성관념과 더불어 혼용적 현상의 다문화 척도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凌叔華는 중국문학의 전통과 서구의 여성 글쓰기 사이에서 절충을 하였지만 양자 간의 분명한 경계를 긋지 못하였다. 그러나, 凌叔華의 진정한 ‘현대성’의 의미를 함유할 수 있는 여성주체성의 전통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의 여성문학을 서구중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凌叔華의 서구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 현대성 구조는 풍자적 모방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문제

35) 朱光潛, 『小哥兒倆』, 『凌叔華小說集』 第2卷에 실림, 460-462쪽 참조.

36) 榮之穎(Angela Jung Palandri), *Women Writers of Twentieth-Century China*, 52-53쪽 참조.

37) 徐志摩, 『曼殊斐爾小說集』, 上海: 北新書局, 1927 참조.

에 있어, 凌叔華의 작이 작품은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연구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III. 나오는 글

서구중심주의에서 중심은 스스로를 보편적인 잣대로 타자를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타자를 주변화하고 소외시킨다. 따라서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해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 서구중심주의에서 ‘중심주의’의 해체는 ‘보편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서구적 사유의 탈중심화, 탈식민화, 유럽(서구)화, 지역화(provincialization)를 의미한다.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 간 혼용적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문화간 상호 빌리기와 교차문화적 융합현상들을 일컫는다.³⁸⁾ 혼용적 현상이 제기하는 최대 문제는 어떻게 제3세계가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서구문명의 선진적 요소를 받아들여 혼용을 시도하는가이다. 서구문명과 비서구문명이 한데 섞이거나 융화함으로써 양자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부분적으로 존속하고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제3세계의 근대화과정을 놓고 본다면, 제3세계 국가들이 서구문명의 근대화된 우월한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구적 가치와 자국적 가치를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고 혼용시켜 자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종합(synthesis)을 창안해 내는 것을 말한다.³⁹⁾ 이는 과거의 전통을 서구적 가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계승하는 한편, 전통에 비추어 서구 문물을 수정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이중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지칭하기도 한다. 곧 그 과정에서 다른 문명의 우수한 일정 요소의 모방 및 수용과 자국 문명의 일정한 요소의 보존 및 발전이라는 이중의 논지가 복잡한 층위에서 전개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도 예외는 될 수 없다. 胡適이 자신이 영어로 쓴 책인

38) 여기서 말하는 혼용적 현상은 서구 문명이 비서구 문명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요소를 차용하여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현상도 당연히 지칭하고 있다.

39) 탈식민주의 문헌에서는 이를 종종 ‘잡종성’의 문제로 다루기도 한다.

『중국의 르네상스 (*The Chinese Renaissance*)』의 첫 문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중국의 문제는 처음에는 아무리 다층적이고 복잡해 보여도 현실적으로 문화적 충돌과 재조정의 문제이다⁴⁰⁾ 당시 서구문화를 인식하는 과정 속에 투영된 문화적 동일성과 이질성, 동화와 이화의 욕망은 중국의 근대성에 대한 사유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林徽因과 凌叔華의 여성 주체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 수 없다. 凌叔華의 여성 주체성은 맨스필드의 여성적 글쓰기 영향으로 중국문학의 전통과 서구의 여성 글쓰기 사이에서 절충을 하였다. 凌叔華의 서구중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여성주의적 문학적 실천은 진정한 ‘현대성’의 의미를 함유할 수 있는 여성주체성의 전통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林徽因은 창작과정에서 ‘에피소드 서술’ 방식인 중국 전통문학의 기술을 빌어, 동조와 비판이라는 이중성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전통적 미학 요소와 서구 현대주의의 미학적 요소의 일치성을 통해 여성문학 속에서 서구중심의 페미니즘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양자 모두 서구의 개입으로 인해 여성의 주체성과 중국전통에 대한 도전이 입성되었지만, ‘서구’라는 개념이 작용한 부분에 있어서 두 사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는 또한 ‘서구’의 개입이 중국 주체성 확립의 다양성과 차별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개입방식의 다양성은 다문화 상호작용의 복잡한 관계양상을 나타내게 되지만, 林徽因과 凌叔華는 서로 각자의 전통방식과 여성 주체성의 자각이라는 현대성을 혼용시켜 서구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문학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현대문학의 소위 ‘페미니즘’은 바로 현대화 및 전통비판의 이중적 실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왜냐하면 전통예교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나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 및 사회적 지위를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은, 단지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의 고립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가적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어 온 중국사회를

40) Hu Shih *The Chinese Renaiss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p. 1.

합리화시켜 현대적 사회와 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과업이었다. 그러나 林徽因과 凌叔華의 다문화적 생활이력은 세계주의 속의 신전통주의를 고민하게 하였고, 동서이원론법이 아닌 양자의 혼용을 취함으로써 중국현대문학 속의 여성문학을 서구 중심으로부터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은 기존 여성주의문학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林徽因과 凌叔華은 서구중심문학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의 세계화와 지역화를 꿈꿀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녀들이 내세웠던 여성주의문학의 기치는 기존의 '반봉건', '개성해방' 등의 구호아래 실천된 전통으로부터의 여성해방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 특유의 경험과 가치의 우월성을 재인식하여 여성성의 개념 등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여성성을 전통적으로 여성성과 연관되어 온 여성특유의 문화-새로운 의식의 창출, 전통적인 여성적 솜씨와 재능의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남성중심사회(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함과 여성성 미학에 대한 재인식은 林徽因과 凌叔華의 여성주체 의식의 형성과정을 뚜렷이 증명하는 근거이지만 이는 분명 서구로부터 받은 영향임을 그녀들의 다문화의식을 통해 밝혔다. 당시 가부장제도에 대한 부정은 유가사상을 근간으로 한 중국인의 전통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여성해방을 주제로 한 문학 뿐만 아니라 5.4 신문화 운동의 전반적인 문학주제였다. 특히 '민주주의'와 '과학'을 사상적인 가치로 했던 신문화운동은 중국 고전문학에 대한 총체적 반성으로 이어졌다. 胡適의 『文學改良』은 종래 지식인의 전통적인 필기 문체였던 문언문을 폐기하고 구두어인 백화문을 쓸 것을 주장하였고, 陳獨秀의 『文學革命論』은 신문학이 고전문학의 상투성을 버리고 근대적 정신을 담을 것을 부르짖었는데, 이는 신문학의 사명이 되었고, 대부분의 작가들도 이러한 문학적 조류를 확고하게 따랐다. 5.4운동은 서구의 르네상스에 버금가는 문화운동의 의미를 지니지만, 르네상스 운동이 고전문학의 부흥에 초점을 둔 반면, 5.4운동은 전통문화와의 단절을 계몽운동의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그들이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 관심을 갖기에는, 대중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고, 전통문화는 중국을 소생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林徽因과 凌叔華의 다문화의식은 현대문학의

다문화적 현대성담론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있겠다. 그녀들은 고전문학의 상투성을 중국 고유의 전통으로 계승하여 서구로부터 다시 확인한 여성의 위치와 여성성을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어내었다. 林徽因과 凌叔華은 세계화와 함께 현대 사회의 특징을 상징하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평등한 입장에서서의 포용적 관점"의 필요성을 문학에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월한 문화는 없다는 전제 하에, 문명충돌 같은 아이디어를 버려야 할 때”라며,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속가능성, 그리고 평등과 함께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호미 바바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41)

❖ 참 고 문 헌

-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이희재 역, 김영사, 1997.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 박종철 출판사. 1999.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 역, 소명출판사, 2002.
박홍규, 『박홍규의 에드워드 사이드 읽기』, 우물이 있는 집, 2003.
J.J.클라크,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우물이 있는 집, 2004.
츠언즈홍, 『중국의 여성주의 문학 비평』, 김혜준 역,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5.
毅眞, 「畿位當代中國女小説家」, 黃人影 編, 『當代中國女作家論』, 上海: 光華書局, 1933年.
陳敬之, 『現代文學早期的女作家』, 臺北: 成文出版社, 1980年.
李健吳, 「九十九度中---林徽因女士做」, 『李健吳創作評論選集』,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4年.
凌叔華, 『凌叔華小説集』, 第1,2卷, 臺北: 洪范書店, 1986年.
王瑤, 「中國現代文學與古典文學的歷史聯繫」, 『北京大學學報』, 第5期, 1986年

41) 호미 바바가 미하버드대 인문학연구소장을 재직 당시 방한하여 강연한 글, 2009년 9월 7일 『한국일보』 참조.

- 汪曾祺, 『晚翠文淡』, 杭州 : 浙江文藝出版社, 1988年.
- 鳴福輝, 『京派小說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0年.
- 史書美, 『中國現代文學中的女性自白小說』, 『當代』, 第95期, 1994年.
- 費慰梅(Wilma Canon Fairbank), 「梁思成과 林徽因-一對探索中國建築史的伴侶」, 『讀書』, 第10期, 1994年.
- Mary Ellmann, *Thinking about Women*,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World, 1968.
- Clara Yu Cuadrado, “Portraits by a Lady: The Fictional World of Ling Shu hua”, *Women Writers of Twentieth-Century China*, Asian Studies Publication Series, Eugene: University of Oregon, 1982.
- Clare Hanson, “Katherine Mansfield”, Bonnie Kime Scott 편집, *The Gender of Modernism*,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ity strategy to overcome the
Western-centrism

- By focusing on Lin, Hui-yin and Ling, Shu-hua's feminist literature

Ko, Hae-kyung

Modern Chinese Literature, the so-called 'feminist' is a very modern and the traditional criticism and took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ouble action. Because a woman's freedom from the bondage of traditional ethics of restoring the social status equal to men but to women does not give, that compared to men and women just the dimension of the problem of isolation is not just. It is dominated by yugajeok worldview by streamlining the whole Chinese society to build a modern society and the country was a critical task. However, multi-cultural life of Lin, Hui-yin and Ling, Shu-hua in the history of the world's attention to the shrine was worried attention to soils, rather than East-West dualism law by taking a mixture of both women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Western literature from the center of effort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point hayeotdaneun feminist literature that may be different. Lin, Hui-yin and Ling, Shu-hua to overcome the Western-oriented culture really the true dream of China's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could be regarded. She naesewotdeon the banner of feminist literature in the traditional 'anti feudal', 'free personality' silcheondoan under such slogans as well as women's liberation from traditional, male-oriented perspective away from the women's unique experiences and new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superiority the concept of a woman, and was to create. In particular, the femininity of these women who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women and the unique culture - the creation of a new consciousness, a re-evaluation of traditional feminine skills and talents was to try to.

Key Words

서구중심주의, 여성주의문학, 林徽因, 凌叔華, 현대성, 다문화주의, 세계주의

Western-centrism, Feminist Literature, Lin, Hui-yin, Ling, Shu-hua, Modernity,
Multiculturalism, Cosmopolitanism

논문접수일: 2011. 10. 22.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